29-04-2018 마두반 천사체 밥다다 옴 샨티 1983/05/15

날아다니는 단계로 들어가는 방법과 자비로운 영혼을 나타내는 표시.

오늘 정원의 주인 아버지는 그의 영적인 정원, 그의 향기로운 꽃들, 그리고 특히 유익을 위한 내일의 도구이며 용기와 열의로 가득한 내일의 꽃봉오리들을 보고 있다. 바바는 내일의 행운의 형상인 어린 아이들을 보고 있다. (오늘 밥다다의 앞에는 어린 아이들의 그룹이 앉아 있다.) 밥다다는 이 어린 아이들을 지구의 반짝이는 별이라고 부른다. 행운의 별인 이들은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늙었거나 젊은 이 모든 자녀들을 보면서 밥다다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세계에 유익을 주려는 "정치가들, 종교의 지도자들, 과학자들이 모두들 달성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는 최대의 과업을 어린 아이인 우리들이 시행할 것이다"라는 결단력 있는 생각과 열성과 열의를 가졌던 수립 초창기의 장면이 기억난다. "어린 우리들이 이 과업을 실행하여 모든 이에게 보여줄 것이다." 오늘 바바는 육신의 형태로 저 어린 자녀들의 그러한 생각을 보고 있다. 오늘 저 소수의 어린 자녀들은 쉬브 샥티 판다브 군대의 형태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너희들은 모두 역사를 안다. 오늘 너희들 모두 불 밝힌 저 등잔불들을 통해서 딥말라 (빛의 염주)가 되었고 아버지 목둘레에 걸린 화환이 되었다. 심지어 지금도 젊거나 늙은 자녀들을 보며 바바는 각 자녀에게서 내일 세상의 행운의 그림을 볼 수 있다. 너희 자녀들은 모두 너희 자신을 뭐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행운의 별들이 아니냐? 오늘은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고, 더 나이든 이들은 갤러리에서 지켜보고 있다. 특별한 자녀들을 보며 밥다다도 역시 행복하다. 각 자녀 하나하나가 여러 영혼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할 권리를 줄 것이다. 어쨌든 어린이들은 위대한 영혼이라고 불린다. 너희 모두 참된, 위대한 영혼들이다, 즉 순수하고 고귀한 영혼들이 아니냐? 위대한 영혼인 너희들은 변함없이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속하고 고결한 하나의 지시만을 따르겠다는 한 가지 결단력 있는 생각을 지속하느냐? 너희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 너희들의 장소로 돌아갔을 때 너희가 누군가의 동반에 사로잡히는 일은 없을 테지? 너희들 모두 여기서 사진이 찍혔다. 그러니 너희들의 고결한 삶을 끊임없이 기억해라. 너희 자녀들 각자가 세상 모든 영혼들의 고귀한 변화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 늘 기억해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책임을 질 용기가 있느냐? 자녀인 너희들 모두 암릿 벨라부터 봉사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다하겠느냐? 너희가 어떤 측면에서 약하다면 그것을 지금 당장 놓아버려라. 모든 이의 눈길이 너희 모두에게 쏠려있다. 그래서 암릿 벨라부터 밤까지 너희 모두는 쉬운 요기이며 고귀한 요기의 삶을 위해서, 즉 고결한 삶을 위해서 주어진 일정표를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이제부터는 단호하게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너희들 모두 요기의 자격요건을 아느냐? (자녀들 모두 밥다다의 질문에 "네"라고 응답했다.) 요기가 어떻게 앉고 어떻게 행동하며 그의 시선이 어떤지 너희 모두 아느냐? 너희는 똑같은 방식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말썽도 약간 부리느냐? 너희들 모두 요기 영혼들이 아니냐?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너희 자녀들은 할 수 없다. 위대한 영혼인 너희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리 많든 상관없이, 평화의 화신인 너희 영혼들을 보면 사람들이 평화를 경험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평화의 화신들로 지낸다. 그들이 너희를 평범한 아이들이 아닌, 독특한 어린이로 보게 해라. 너희는 독특하고 특별한 영혼들이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아가느냐? 지금부터 이것을 변화시켜라. 오늘 밥다다는 특히 너희 자녀들을 모두 만나려고 왔다. 이해하느냐?

더 나이든 자들도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왔다. 밥다다는 여기에 온 자녀들 모두에게 특별한 기억을 주고 있다. 이것뿐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의 때에 따라 밥다다는 자녀들을 모두 날아다니는 단계로 데려가고 있다. 날아다니는 단계를 위한 고귀한 방법이 뭔지 너희는 알고 있지 않으냐?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써 너희는 날아다니는 단계를 변함없이 경험할

수 있다. 그 한 가지 표현이 무엇이냐? 그저 “모든 것은 당신의 것 (테라)입니다!” 이다. 너희는 “나의 것 (메라)”이라는 말을 “당신의 것 (테라)”으로 바꿨다. “당신의 것”이라는 말은 너희가 그에게 속하게 만드는데 이 한 단어가 너희를 영원히 더블 라이트하게 만든다. 너희가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영혼이 가볍고 너희가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 할 때도 역시 너희는 (아무 무게도 없이) 가벼워진다. 이처럼 “당신의 것”이라는 단 한 마디다. 더블 라이트함으로써 너희는 쉽게 날아다니는 단계가 된다. 너희는 오랜 기간 동안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훈련을 해왔다. “나의 것”이라는 이 말은 너희를 여러 가지 유형의 회전 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 단어 하나다. “나의 것”이 이젠 변해서 “당신의 것"이 되었다. 이 변화는 어렵지 않다, 그렇지? 이 한 단어의 참된 형태에 변함없이 안정해 머물러라. 너희가 뭘 해야 하는지 이해하느냐? 끊임없이 한 분에 대한 사랑에 넋을 잃고 지내는 고귀한 영혼들은 현재의 때에 고귀한 삶을 경험하고 또 그들의 미래를 고귀하고 불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이 한 단어를 기억해라. 이해하느냐? 이것을 기반으로 너희는 각자 원하는 정도만큼 발전할 수 있고 또 각자가 원하는 만큼 많은 보물들을 쌓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좋은 가문 출신으로 세속의 삶에서 유명한 영혼들은 살면서 항시 기부하고 자선을 행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너희들은 모두 전체 모든 가문들 중에서 제일 크고 최고로 고귀한 가문 출신이다. 그러니 고귀한 가문에 속하는 브라민 영혼들, 즉 모든 보물들로 가득한 영혼들의 목표는 무엇이냐? 한결같이 위대한 기부자로 지내라. 변함없이 자선을 베푸는 영혼이 되어라. 만일 너희가 어떤 악덕에 의해 영향을 받은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뭐라고 불리겠느냐? 그것이 죄가 되겠느냐 자선이 되겠느냐? 그것은 죄라고 불리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자아를 위해서도 역시 자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즉 생각으로 자선을 베풀고, 말로 자선을 베풀고, 행위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가 자선을 베푸는 영혼이 되면 어떠한 죄의 이름이나 흔적도 있을 수 없다. 그러한즉 브라민 영혼인 너희 모두 변함없이 자선을 베푸는 영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며 지내라. 어떤 영혼에 대해서도 고귀한 감정과 고결한 좋은 염원을 가지는 것이 최대로 큰 자선이다. 다른 영혼이 어떠하든, 그 영혼이 너희에게 반대하거나 너희를 사랑하거나 상관없이, 자선을 베푸는 영혼의 자선은 너희에게 맞서는 영혼을 고결한 감정이라는 자비로운 보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뭔가 결여된 영혼이 부족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과제를 행하는 것을 자선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선이다. 반대하는 영혼이 자선을 베푸는 영혼인 너희들 앞에 오면 너희는 항상 그 영혼을 관용하는 힘을 빼앗긴 영혼으로 볼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쌓아둔 자선, 좋은 염원, 고결한 감정들로 너희는 그 영혼이 관용하는 힘을 얻게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그 영혼에게 자선의 행위가 된다. 자선을 베푸는 영혼은 변함없이 자아를 공여자의 자녀인, 공여자라 여긴다. 그는 일시적인 성취를 원하는 어떤 욕구도 초월해 머물고, 심지어 어느 누구에게서 뭔가를 취하는 것까지 초월해 머문다. 그런 영혼은 ”이 영혼이 뭔가를 주면 나도 뭔가를 주겠어. 이 사람이 뭔가를 하면 나 역시 뭔가 할거야“라는 제한된 소망을 전혀 갖지 않는다. 공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이에게 사랑, 협조, 힘을 주는, 자선을 베푸는 영혼일 것이다. 자선을 베푸는 영혼은 자기가 행한 자선에 대해 칭송 받기를 원하는 소망을 결코 품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선을 베푸는 영혼으로서 그는 제한된 칭송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원한 성취를 상실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주는 데서 그는 항상 대양처럼 가득할 것이다. 자신을 베푸는 영혼은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마다 남들에게 행복, 아버지의 사랑, 초감각적인 기쁨, 희열로 충만한 영적인 삶에 대한 경험을 줄 것이다.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행복이라는 자양분일 것이다. 자선을 베푸는 영혼의 모든 행위는 영혼들 모두가 협조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자선을 베푸는 이 영혼을 보고 모든 영혼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날아가도록 도움 받고 있다는 경험을 할 것이다. 자선을 베푸는 영혼의 자격요건을 이해하느냐? 따라서 한결같이 그런 영혼들이 되어라, 즉 고결한 브라민 생의 실질적인 형태가 되어라. 순수한 가정의 자선을 베푸는 영혼들이 되어라, 오직 그렇게 자선을 베푸는 영혼들의 영향으로만 죄의 이름과 흔적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앗챠.

모든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선을 행하는 자비로운 영혼들에게, 한결같이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써 날아다니는 단계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공여자의 자녀들로서 끊임없이 모든 이에게 주는 특별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쿠마르들을 위한 밥다다의 고귀한 말씀 .

쿠마르인 너희들 모두 1등을 차지할 것이 아니냐? 1등을 차지할 자가 한 명뿐이냐, 아니면 너희들 중 많은 수가 그렇게 되겠느냐? 앗챠. 너희는 제1사단에 들어갈 자들이냐? 1등을 차지할 자들의 특질이 뭔지 아느냐? 제일 먼저 온 자들은 항상 아버지와 대등하다. 대등함은 가까움을 가져온다. 가까운 자들, 즉 대등해질 자들은 제1사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언제 아버지와 대등해지려느냐? 승리의 염주의 등수가 발표될 때 너희는 뭘 하겠느냐? 현재의 순간말고는 날짜가 없다. 너희 쿠마르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너희는 자파티 두 장을 먹고 아버지를 위한 봉사에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게 전부 아니냐? 단 두 장의 자파티를 위해서 너희는 어떤 과제든 수행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애착 때문은 아닐 테지?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쿠마르들은 단지 하라는 말을 듣는다고 뭔가를 하지는 않는데, 그들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대등해지겠다는 목표를 변함없이 간직해라. 아버지가 가벼운 것처럼 그렇게 더블 라이트해져라. 남들을 보면 너희는 약해진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따라라. 한결같이 이를 기억해라. 너희 스스로를 변함없이 아버지의 보호의 가리개 아래에 두어라. 보호의 가리개 아래 머무는 자들은 변함없이 마야의 정복자가 된다. 만일 너희가 보호의 가리개 아래 머물지 않는다면, 때로는 그 아래 있고 더러는 그것에서 떨어져 있다면 너희는 패배한다. 보호의 가리개 아래 머무는 자들은 노력할 필요가 없다. 모든 힘의 광선들은 자동적으로 너희를 마야의 정복자로 만든다. “한 분 뿐인 아버지는 모든 관계로 나에게 속한다”는 의식은 너희를 강력한 영혼으로 만든다.

쿠마르들아, 이제는 모든 이가 “만일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있다면 그들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만들 계획을 마련해라. 너희는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 모두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자들이며, 장애의 파괴자가 된다. 분위기를 강력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라. 승리의 깃발이 끊임없이 휘날리게 해라. 그처럼 특별한 계획을 마련해라. 결속되어 있는 곳에는 성공이 쉽게 온다. 하지만 남들을 쓰러뜨리는 데는 결속이 있게 하지말고, 남들을 높아지게 만드는 데서 결속해라. 한결같이 날아다니는 단계에 있겠으며 모든 이를 함께 데려가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라. “쿠마르”란 끊임없이 순종적이고 충실한 자들이라는 뜻이다. 너희는 매 발걸음마다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이다. 아버지의 미덕들은 곧 자녀들의 미덕이다. 아버지의 과업이 곧 자녀들의 과업이다. 아버지의 산스카르들은 자녀들의 산스카르다. 이를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라 한다. 너희는 다만 아버지가 이미 행해온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모방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모방함으로써 너희는 만점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는 모방하면 점수가 줄어드는 반면, 여기서는 모방하면 너희가 만점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선 첫째로 너희가 하는 모든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과 같은지 여부를 점검해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걸 바꿔라. 만일에 같다면 그것을 실천에 옮겨라. 이것은 참으로 쉬운 길이다! 너희는 단순히 아버지가 행한 것만 하면 된다. 변함없이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은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의 단계에 안정해 머물 것이다.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산은 모든 힘과 모든 미덕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상속자들”이란 모든 힘과 모든 미덕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들이라는 뜻이다. 권리를 가진 자가 어떻게 그 권리를 잃을 수 있겠느냐? 만일 너희가 부주의해진다면 마야가 그것들을 훔쳐갈 것이다. 마야는 또 브라민 영혼들이 최고의 고객이라는 점을 발견한다. 이렇게 그녀는 기회를

살핀다. 너희는 반 사이클 동안 그녀의 동반자였으니 그녀가 그런 동반자들을 어찌 그냥 그렇게 보내주겠느냐? 오는 것은 마야의 의무이며 너희들의 의무는 혼돈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다. 사냥감이 사냥꾼 앞에 나타난다고 그가 겁을 먹겠느냐? 마야가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해라. 앗챠.

밥다다가 교사들을 만나심 .

도구 봉사자들아! '도구'라 함으로써 누가 너희를 도구로 만들었는지 너희는 쉽게 기억한다. '봉사자'라는 말을 쓸 때마다 반드시 그 앞에 '도구'라는 말을 틀림없이 써라. 너희 스스로를 도구라고 여김으로써 너희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테고, 겸손한 그 정도만큼 너희는 결실을 풍부하게 거둘 것이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결실의 화신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면 도구 봉사자인 너희들 모두 제 스스로를 도구라고 간주하면서 계속 나아가느냐? 그들 스스로를 도구라고 여기는 자들은 항상 가볍고 늘 성공의 화신이다. 너희가 가벼운 그 정도만큼 너희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때로는 봉사가 더 적고 더러는 더 많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지는 않을 테지? 너희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까 의아해하면서 무거워지지는 않겠지? "모든 이를 움직이게 만드는 분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단지 도구로서 과제를 행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이 봉사자의 특별함이다. 너희 자신의 노력에 대해 한결같이 행복해하며 머물고 봉사에 만족해라, 오직 그제야 너희가 도구가 되어준 그들이 충족될 터이기 때문이다. 변함없이 충족되어 머물고 남들을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특기다.

현재의 때에 따라서 봉사자들의 봉사는 무엇이냐? 모든 이를 가볍게 만드는 봉사다. 모든 이를 날아다니는 단계로 데리고 들어가는 봉사다. 너희가 가벼워야만 남들을 날아다니는 단계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 온갖 유형의 너희들의 짐이 가벼워졌고 너희는 남들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자들이다. 너희를 도구로 삼은 영혼들이 각자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너희가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들이 어딘가에 걸려 꼼짝 못 하거나 갇히게 놔두지 말고 너희가 먼저 가벼워지고 그들을 가볍게 만들어줘야 한다. 너희가 가벼워지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너희의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봉사자들의 현재의 봉사다. 계속해서 날고 남들이 날게 해라. 모든 이가 다 봉사에서 복권에 당첨되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복권을 사용해라. 매 호흡마다, 매 1초1초마다 봉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해라. 이것에서 한결같이 바쁘게 지내라. 앗챠.

Blessing: 지식의 태양 마스터가 되어 행복의 화신이 됨으로써 행복의 광선을 세상에 퍼뜨려라.

아버지가 지식의 대양이며 행복의 대양인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역시 지식의 화신, 행복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 모든 미덕에 대해 그저 말만하지 말고 그것을 경험해라. 너희가 행복의 화신임을 경험하고 나면, 행복의 화신인 영혼들에게서 행복의 광선이 온 세상 전체에 퍼질 것이다. 태양의 광선이 온 세상 전체에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지식, 행복, 희열의 광선들이 모든 영혼에게 닿으면 너희는 지식의 태양 마스터라고 불릴 것이다.

Slogan: 신성하게 태어난 브라민들은 말, 생각, 행위로 신성함의 경험을 주는 자들이다.

***** 옴 샨티 O M S H A N T I *****